영남지역 일부 주민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주관적인 구강보건과 삶의 질 평가

김지화 · 이정화

포항대학 치위생과

색인 : 구강보건영향지수(OHIP-14), 전신건강지수(THI), 삶의 질(QOL)

책임저자 : 김 지화

연 락 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동 55번지 포항대학 치위생과(791-711)

전화번호 : 054-245-1221 휴대폰: 010-4157-5138

F A X : 054-251-4646

E-mail : dhwa@pohang.ac.kr

1. 서 론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질병의 관리 방법이 과거의 질병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 개념인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건강의 개념변화로 인하여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구강보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하였는데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영향을 미친다[1)]고 하였으며, 구강질환을 많이 보유 할수록 삶의 질을 저하 시킨다[2)]고 하였다. 그러나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경제적 성장, 매스컴을 통한 홍보, 치과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의료보험의 확대적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신건강에 비하여 구강건강을 소홀히 생각하고 자신의 구강상태를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식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계속 증가 되고 있다[3)]. 이는 구

www.kci.go.kr

강병 예방보다 치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구강질환의 관리는 예방에 관심을 두고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기에서 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경제활동으로 바쁜 성인기에는 구강보건교육을 소홀히 하여 치아가 상실된 다음, 노인기의 구강보건교육은 보철물관리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아상실전 구강관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구강건강을 빼고 전신건강만을 논할 수 없으며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한 객관적 지표보다 환자가 느끼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 변화를 중요시 하고 있어[4] 주관적 구강보건영향지수(OHIP-14; Oral Health Impact Profile-14)와 주관적 전신건강지수(THI; Todai Health Index)를 사용하여, 구강보건이 전신건강과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6년 10월 2일에서 11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훈련된 치위생과 학생 2명을 1개조로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문항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20세 이상 성인, 총 67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들 중 연구의 주요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572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실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식생활 행태, 구강보건영향지수(OHIP-14), 전신건강지수(THI), 삶의 질(QOL)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구강보건영향지수(OHIP-14) 조사를 위한 도구는 Slad(1997)가 OHIP-49에서 도출한 OHIP-14를 사용하였고,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얼마나 하였는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신건강지수(THI)는 1977년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 보건학과에서 개발되어 사용된 것으로 비 신체항목을 제외한 신체항목에서만 14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도구는 1998년 WHO에서 개발한 WHOQOL-BREF를 사용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

www.kci.go.kr

용하여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PSS(Ver.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OHIP-14, THI, QOL은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다. 각 요인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일반적 특성과 건강생활을 살펴본 결과(표 1.) 여자가 58.0%로 남자 42.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0~29세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 59.6%로 높았다. 월평균수입은 '150만원 이하' 응답자가 43.5%이고, 판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38.3%이었다.

건강생활에서 한 달에 1-3번 '음주한다'고 응답한 자가 49.34%이었으며, '전혀 안 마신다'가 25.5%, '주1회 이상 한다'가 25.2%순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흡연은 '하지 않는 자'가 73.1%로 높았으며,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35.5% 이었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

www.kci.go.kr

구 분			대상자(명)	백분율(%)
일반적 특성	성별	남	240	42.0
		여	332	58.0
	연령(세)	20-29	203	35.5
		30-39	118	20.6
		40-49	125	21.9
		50≤	126	22.0
	학력	중졸이하	68	11.9
		고졸	341	59.6
		전문대졸이상	163	28.5
	월평균수입 (만원)	≤ 150	249	43.5
		151-250	170	29.7
		251≤	153	26.7
	직업	판매,생산직	219	38.3
		학생,군인,주부	201	35.1
		교육자,공무원	27	4.7
		기술전문직	95	16.6
		무직	30	5.2
건강생활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25.5
		1달에1-3회	282	49.3
		주1회이상	144	25.2
	흡연량	전혀안함	418	73.1
		하루에한갑정도	117	20.5
		하루에1갑초과	37	6.5
	운동횟수	안한다	203	35.5
		1달에1-2회	139	24.3
		1주에1-3회	165	28.8
		매일	65	11.4

3.2.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자가 인식 구강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40.4%로 가장 높았고 '보통' 31.6%, '매우 나쁨' 13.5%, '건강한 편' 11.5%, '매우 건강'이 3.0%의 순이었다.(표 2.)

특성별로 보면 남자에서 나쁜 편이 38.3%, 여자에서 41.9%($p<0.05$)이었으며, 연령에서 20-29세에서 '나쁜편이다' 42.9%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수입이 251만원이상이 43.8%,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학력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나쁜편이다'($p<0.05$)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흡연량에서도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운동횟수와 음주습관은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2.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 분		대상자 572(명)	자가 인식 구강건강상태					χ^2
			매우나쁨	나쁜편	보통	건강한편	매우건강	
			13.5	40.4	31.6	11.5	3.0	
일반	성별 남	240	14.2	38.3	29.2	12.9	5.4	10.380*
	여	332	13.0	41.9	33.4	10.5	1.2	df=4

www.kci.go.kr

적특성	연령(세)	20-29	203	10.8	42.9	33.0	9.4	3.9	9.735 df=12
		30-39	118	11.0	39.0	34.7	13.6	1.7	
		40-49	125	14.4	37.6	32.0	12.8	3.2	
		50≤	126	19.0	40.5	26.2	11.9	2.4	
	학력	중졸이하	68	20.6	50.0	19.1	4.4	5.9	19.081* df=8
		고졸	341	14.4	39.6	30.8	12.6	2.6	
		전문대졸이상	163	8.6	38.0	38.7	12.3	2.5	
	월평균수입(만원)	≤ 150	249	13.3	42.2	31.7	9.2	3.6	5.964 df=8
		151-250	170	14.7	34.7	34.1	13.5	2.9	
		251≤	153	12.4	43.8	28.8	13.1	2.0	
	직업	판매,생산직	219	14.2	42.0	30.1	11.4	2.3	12.578 df=16
		학생,군인,주부	201	12.4	42.8	30.8	11.4	2.5	
		교육자,공무원	27	11.1	33.3	37.0	18.5	0.0	
		기술전문직	95	12.6	32.6	38.9	10.5	5.3	
		무직	30	20.0	43.3	20.0	10.0	6.7	
건강생활	음주습관	전혀안함	146	13.0	41.1	34.2	11.0	0.7	10.614 df=8
		1달에1-3회	282	13.8	41.1	32.6	9.2	3.2	
		주1회이상	144	13.2	38.2	27.1	16.7	4.9	
	흡연량	전혀안함	418	12.0	41.4	33.5	11.5	1.7	28.046*** df=8
		하루에한갑정도	117	19.7	39.3	28.2	8.5	4.3	
		하루에1갑초과	37	10.8	32.4	21.6	21.6	13.5	
	운동횟수	안한다	203	15.8	44.8	29.6	6.9	3.0	16.163 df=12
		1달에1-2회	139	12.9	41.7	31.7	10.8	2.9	
		1주에1-3회	165	10.3	38.2	34.5	14.5	2.4	
		매일	65	15.4	29.2	30.8	20.0	4.6	

* : $p<0.05$, *** : $p<0.001$

3.3.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수준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라 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표 3.)를 보면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지식이 3.40점으로 남자보다 높았고($p<0.05$), 구강보건실천도 여자가 높았으며($p<0.01$), 식생활행태는 남자가 3.47점으로 높았다($p<0.01$). 연령에서 각 요인을 살펴보면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40~49세가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20~29세는 3.10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이 구강보건실천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월수입에서는 식생활행태에서 251만원이상인 경우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에서는 교육자와 공무원이 구강보건실천에서 가장 높았으며($p<0.05$), 식생활행태는 기술전문직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음주습관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량은 하루 한갑 이상 피우는 자가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다($p<0.05$). 평소운동은 매일 하는 자가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표 3.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수준

구 분		구강보건지식 mean±SD	F or t	구강보건실천 mean±SD	F or t	식생활행태 mean±SD	F or t
		3.28±1.54		2.49±0.55		3.34±0.69	
성별	남	3.10±1.61	-2.29*	2.41±0.56	-2.87**	3.47±0.65	3.83**
	여	3.40±1.47		2.54±0.53		3.23±0.70	

www.kci.go.kr

	연령 (세)	20-29	3.17±1.54	0.49	2.48±0.53	2.35	3.10±0.71	16.96**
		30-39	3.35±1.44		2.53±0.56		3.32±0.67	
		40-49	3.34±1.49		2.56±0.51		3.59±0.62	
		50≤	3.31±1.65		2.39±0.57		3.48±0.61	
	학력	중졸이하	3.15±1.73	0.37	2.34±0.55	3.64*	3.44±0.60	0.953
		고졸	3.27±1.53		2.48±0.53		3.32±0.71	
		전문대졸이상	3.34±1.48		2.55±0.57		3.34±0.67	
	월평균 수입 (만원)	≤ 150	3.21±1.57	0.54	2.43±0.55	2.81	3.18±0.70	13.43**
		151-250	3.29±1.49		2.50±0.53		3.41±0.68	
		251≤	3.37±1.53		2.56±0.55		3.52±0.62	
	직업	판매,생산직	3.30±1.58	0.10	2.50±0.54	3.07*	3.40±0.66	2.96*
		학생,군인,주부	3.30±1.54		2.49±0.52		3.22±0.71	
		교육자,공무원	3.30±1.54		2.71±0.50		3.30±0.70	
		기술전문직	3.24±1.46		2.50±0.56		3.50±0.64	
		무직	3.07±1.84		2.21±0.66		3.30±0.78	
건강생활	음주습관	전혀안함	3.40±1.60	0.66	2.50±0.54	0.09	3.32±0.70	0.27
		1달에1-3회	3.30±1.51		2.50±0.55		3.40±0.67	
		주1회이상	3.20±1.50		2.50±0.56		3.30±0.72	
	흡연량	전혀안함	3.40±1.50	4.30*	2.52±0.54	2.86	3.30±0.70	2.16
		하루에한갑정도	2.91±1.64		2.39±0.53		3.44±0.66	
		하루에1갑초과	3.51±1.57		2.40±0.61		3.40±0.70	
	운동횟수	안한다	3.26±1.61	0.32	2.37±0.53	5.95**	3.18±0.67	6.83**
		1달에1-2회	3.36±1.42		2.49±0.50		3.36±0.65	
		1주에1-3회	3.28±1.51		2.57±0.55		3.41±0.67	
		매일	3.14±1.62		2.62±0.61		3.58±0.78	

* : p<0.05, ** : p<0.01

3.4.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OHIP-14 수준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OHIP-14를 보면(표 4.) 전체 점수는 4.08점이었으며, 사회적 불리4.35로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적 능력저하 4.33, 심리저하 4.15, 신체적 능력저하 4.06, 기능제한 4.02, 심리적 불편 3.89, 신체적 동통 3.73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신체동통에서 점수가 높았다(p<0.05). 연령별로 40-49세가 OHIP-14 총 점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기능제한, 신체저하, 심리저하, 사회저하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연령에서는 20-29세가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신체저하에서는 40-49세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학력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월평균수입은 251만원 이상인일 때가 OHIP-14에서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제한과 심리능력저하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아서 다른 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흡연량은 사회능력저하에서 흡연을 전혀 안하는 자가 가장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직업, 음주습관과 운동 횟수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OHIP-14 수준

구 분	기능제한		신체동통		심리불편		신체저하		심리저하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4.02±0.80		3.73±0.85		3.89±0.83		4.06±0.79		4.15±0.75	

www.kci.go.kr

성별	남	4.06±0.82	1.03	3.83±0.86	2.35*	3.91±0.83	0.50	4.08±0.79	0.27	4.17±0.75	0.42
	여	3.99±0.79		3.66±0.84		3.88±0.84		4.06±0.78		4.14±0.75	
연령	20-29	3.87±0.79		3.71±0.06		3.82±0.83		4.00±0.75		4.03±0.75	
(세)	30-39	4.20±0.71	6.07***	3.83±0.08	3.80**	4.03±0.70	2.31	4.15±0.71	4.80***	4.26±0.65	4.09**
	40-49	4.16±0.77		3.87±0.86		3.97±0.92		4.24±0.81		4.28±0.79	
	50≤	3.94±0.89		3.54±0.92		3.81±0.86		3.90±0.85		4.11±0.77	
학력	중졸이하	3.89±0.82		3.50±0.98		3.82±0.99		4.07±0.85		4.18±0.79	
	고졸	4.03±0.82	1.03	3.76±0.84	2.93	3.90±0.85	0.37	4.04±0.82	0.69	4.11±0.79	1.09
	전문대졸이상	4.05±0.75		3.77±0.81		3.92±0.72		4.12±0.69		4.22±0.65	
월수입	≤ 150	3.92±0.78		3.66±0.85		3.83±0.85		3.98±0.79		4.04±0.79	
(만원)	151-250	4.05±0.81	3.41*	3.75±0.88	2.13	3.96±0.81	1.55	4.10±0.80	2.85	4.20±0.69	5.20***
	251≤	4.13±0.82		3.84±0.81		3.93±0.83		4.16±0.75		4.28±0.73	
직업	판매,생산직	4.08±0.81		3.77±0.84		3.93±0.80		4.06±0.80		4.19±0.75	
	학생,군인,주부	4.93±0.79		3.70±0.84		3.89±0.82		4.05±0.77		4.10±0.77	
	교육자,공무원	4.26±0.75	2.07	3.69±0.86	1.00	3.69±0.90	0.58	4.13±0.74	0.26	4.22±0.74	0.57
	기술전문직	4.05±0.83		3.82±0.87		3.86±0.94		4.11±0.82		4.17±0.74	
	무직	3.82±0.77		3.50±0.89		3.90±0.75		3.97±0.75		4.07±0.63	
음주	전혀안함	3.98±0.80		3.73±0.85		3.89±0.83		4.10±0.80		4.18±0.73	
습관	1달에1-3회	3.75±0.89	0.42	3.89±0.88	0.63	3.90±0.81	0.00	4.06±0.79	0.28	4.16±0.72	0.59
	주1회이상	3.70±0.83		3.90±0.81		3.90±0.84		4.03±0.77		4.09±0.83	
흡연	전혀안함	4.02±0.77		3.75±0.85		3.89±0.83		4.11±0.76		4.18±0.73	
량	하루에1갑정도	3.97±0.88	0.41	3.69±0.90	0.18	3.88±0.86	0.42	3.94±0.82	2.75	4.07±0.78	1.11
	하루에1갑초과	4.11±0.89		3.73±0.12		4.01±0.79		3.95±0.90		4.09±0.84	
운동	안한다	3.97±0.83		3.70±0.86		3.86±0.79		4.02±0.80		4.12±0.74	
횟수	1달에1-2회	4.01±0.79	0.61	3.71±0.81	2.31	3.87±0.86	1.30	4.08±0.71	2.09	4.10±0.73	1.35
	1주에1-3회	4.05±0.80		3.68±0.88		3.88±0.86		4.03±0.85		4.16±0.77	
	거의매일	4.11±0.76		3.99±0.81		4.08±0.84		4.28±0.71		4.32±0.77	

사회저하		사회불리		OHIP-14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4.33±0.67		4.35±0.65		4.08±0.62	
4.31±0.69	-0.50	4.33±0.67	-0.63	4.10±0.63	0.70
4.34±0.67		4.37±0.64		4.06±0.60	
4.27±0.68		4.29±0.68		4.00±0.59	
4.40±0.64	3.07*	4.42±0.56	2.37	4.19±0.54	5.25***
4.45±0.64		4.45±0.60		4.20±0.62	
4.25±0.71		4.29±0.71		3.98±0.68	
4.32±0.76		4.32±0.71		4.01±0.72	
4.32±0.69	0.09	4.33±0.66	0.30	4.07±0.63	0.68
4.35±0.60		4.38±0.58		4.12±0.53	
4.26±0.72		4.33±0.70		4.00±0.63	
4.38±0.61	2.92	4.34±0.63	0.73	4.11±0.60	3.71*
4.41±0.65		4.41±0.60		4.16±0.60	
4.35±0.69		4.37±0.64		4.11±0.63	
4.29±0.70		4.36±0.65		4.05±0.60	
4.35±0.55	0.42	4.48±0.56	0.88	4.12±0.56	0.62
4.38±0.62		4.32±0.64		4.10±0.64	
4.27±0.72		4.18±0.76		3.96±0.61	
4.39±0.65		4.38±0.63		4.09±0.62	
4.33±0.65	0.85	4.37±0.63	0.73	4.08±0.59	0.09
4.28±0.75		4.30±0.71		4.07±0.67	
4.37±0.64		4.39±0.61		4.10±0.59	
4.27±0.76	3.18*	4.25±0.74	2.58	4.00±0.66	1.10
4.11±0.75		4.26±0.75		4.04±0.69	
4.33±0.65		4.35±0.67		4.05±0.62	
4.36±0.64	0.77	4.30±0.60	0.59	4.06±0.57	1.54
4.28±0.72		4.38±0.64		4.07±0.64	
4.42±0.67		4.41±0.73		4.23±0.61	

www.kci.go.kr

* : p<0.05, ** : p<0.01

3.5.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THI 수준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THI를 보면(표 5) 총 점수는 3.51점이고 구강·항문 3.63점이 가장 높았으며, 호흡기 3.55점, 소화기 3.53점, 피부·눈 3.48점, 다 자각증상 3.45점 순이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THI 총 점수가 3.70점으로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피부, 눈 3.61점, 소화기 3.70점, 구강 3.87점, 다 자각증상 3.73점에서 점수가 높았다(p<0.001). 연령에서는 전 영역에서 20-29세가 점수가 낮았으며, 30-39세가 총 점수에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p<0.05). 학력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수입은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p<0.01), 251만원 이상인 경우가 총 점수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직업은 판매, 생산직과 기술전문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흡연량은 전혀 안하는 자가 호흡기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표 5.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THI 수준

		호흡기		피부,눈		소화기		구강,항문		다자각증상		THI	
	구 분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3.55±0.78		3.48±0.71		3.53±0.82		3.63±0.84		3.45±0.78		3.51±0.63	
성별	남	3.59±0.77	0.84	3.61±0.40	3.85***	3.70±0.79	4.35***	3.87±0.75	6.11***	3.73±0.69	7.52***	3.70±0.59	6.44***
	여	3.53±0.79		3.38±0.69		3.40±0.82		3.45±0.87		3.25±0.79		3.37±0.61	
연령	20-29	3.44±0.83		3.30±0.76		3.33±0.85		3.49±0.87		3.28±0.83		3.34±0.65	
(세)	30-39	3.58±0.66	3.20*	3.64±0.62	7.61***	3.53±0.74	8.52***	3.73±0.79	3.08*	3.63±0.69	6.01***	3.62±0.54	7.64***
	40-49	3.71±0.79		3.57±0.65		3.59±0.81		3.67±0.84		3.54±0.76		3.60±0.59	
	50≤	3.56±0.76		3.53±0.70		3.78±0.79		3.72±0.83		3.46±0.77		3.57±0.63	
학력	중졸이하	3.53±0.72		3.42±0.71		3.62±0.79		3.65±0.91		3.30±0.75		3.45±0.62	
	고졸	3.54±0.82	0.33	3.48±0.71	0.47	3.54±0.84	1.18	3.66±0.85	0.94	3.47±0.77	1.41	3.52±0.63	0.32
	전문대졸이상	3.60±0.72		3.51±0.69		3.45±0.78		3.55±0.81		3.47±0.82		3.50±0.62	
월수입	≤ 150	3.41±0.82		3.32±0.74		3.34±0.84		3.48±0.85		3.25±0.79		3.33±0.63	
(만원)	151-250	3.67±0.72	7.46**	3.55±0.66	12.63***	3.65±0.78	11.30***	3.75±0.85	6.99**	3.58±0.74	15.40***	3.62±0.61	18.23***
	251≤	3.65±0.74		3.66±0.63		3.68±0.77		3.74±0.79		3.63±0.75		3.66±0.56	
직업	판매,생산직	3.66±0.78		3.54±0.68		3.63±0.77		3.70±0.82		3.55±0.71		3.60±0.59	
	학생,군인,주부	3.47±0.81		3.37±0.73		3.42±0.86		3.59±0.83		3.27±0.79		3.39±0.62	
	교육자,공무원	3.48±0.63	2.28	3.46±0.86	2.69**	3.52±0.96	1.92	3.43±0.96	0.87	3.42±0.90	5.00**	3.45±0.74	3.88**
	기술전문직	3.58±0.75		3.61±0.65		3.55±0.81		3.62±0.87		3.62±0.79		3.60±0.62	
	무직	3.32±0.75		3.36±0.71		3.40±0.76		3.62±0.92		3.40±0.89		3.41±0.69	
음주	전혀안함	3.55±0.80		3.46±0.68		3.52±0.80		3.48±0.84		3.33±0.79		3.45±0.58	
습관	1달에1-3회	3.56±0.74	0.08	3.50±0.67	0.19	3.56±0.79	0.77	3.62±0.85	0.97	3.44±0.75	4.57*	3.51±0.59	1.04
	주1회이상	3.53±0.84		3.46±0.79		3.46±0.89		3.71±0.84		3.60±0.82		3.56±0.71	
흡연량	전혀안함	3.62±0.76		3.47±0.68		3.53±0.81		3.57±0.84		3.40±0.77		3.49±0.60	
	하루에1갑정도	3.35±0.76	6.16**	3.56±0.73	2.07	3.49±0.84	0.46	3.79±0.81	4.17*	3.57±0.77	2.79	3.56±063	0.57
	하루에1갑초과	3.45±0.97		3.29±0.85		3.64±0.89		3.80±0.95		3.59±0.97		3.54±0.82	
운동	안한다	3.51±0.77		3.41±0.74		3.46±0.86		3.57±0.89		3.36±0.78		3.44±0.66	
횟수	1달에1-2회	3.49±0.82	1.30	3.46±0.67	1.62	3.44±0.74	2.83*	3.60±0.72	0.83	3.45±0.80	1.79	3.47±0.58	2.36
	1주에1-3회	3.62±0.74		3.53±0.68		3.61±0.78		3.71±0.85		3.52±0.72		3.57±0.57	
	거의매일	3.65±0.79		3.61±0.73		3.72±0.91		3.66±0.94		3.57±0.89		3.62±0.71	

* : p<0.05, ** : p<0.01

www.kci.go.kr

3.6.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QOL 수준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QOL을 보면(표 6.) 총 점수는 3.20점이었으며, 세부 영역에서는 사회적 영역이 3.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영역 3.19점, 신체적 영역 3.18점, 생활환경 영역 3.15점,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 3.10점 순 이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서 전문대졸 이상이 QOL의 총 점수 3.30점, 고졸 3.18점, 중졸이하 3.12점 순이었으며 세부영역에서도 전문대학이상 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습관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량은 전혀 하지 않는 자가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운동 횟수는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p<0.05$), 매일 운동하는 자가 총 점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표 6.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QOL 수준

구 분		전반적인 삶의질	F or t	신체적	F or t	심리적	F or t	사회적	F or t	생활환경	F or t	QOL	F or 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3.10±0.57		3.18±0.49		3.19±0.52		3.35±0.52		3.15±0.50		3.20±0.40	
성별	남	3.05±0.59	-1.57	3.23±0.52	2.09*	3.23±0.55	1.59	3.34±0.55	-0.43	3.14±0.50	-0.19	3.22±0.43	0.81
	여	3.12±0.56		3.14±0.47		3.16±0.49		3.36±0.50		3.15±0.50		3.19±0.38	
연령 (세)	20-29	3.14±0.61		3.22±0.48		3.20±0.54		3.36±0.53		3.20±0.48		3.24±0.39	
	30-39	3.12±0.53	1.15	3.17±0.47	0.90	3.18±0.51	0.25	3.36±0.51	0.44	3.15±0.52	1.66	3.20±0.41	1.05
	40-49	3.06±0.59		3.17±0.50		3.20±0.52		3.37±0.55		3.09±0.48		3.20±0.41	
	50≤	3.03±0.54		3.13±0.51		3.15±0.50		3.30±0.50		3.11±0.52		3.16±0.41	
학력	중졸이하	2.97±0.62		3.08±0.53		3.12±0.52		3.26±0.54		3.08±0.49		3.12±0.41	
	고졸	3.07±0.57	4.84**	3.16±0.45	3.55*	3.15±0.50	3.79*	3.33±0.51	3.29*	3.11±0.48	5.99**	3.18±0.38	6.94**
	전문대졸 이상	3.20±0.55		3.26±0.54		3.28±0.55		3.43±0.53		3.26±0.52		3.30±0.43	
월수입 (만원))	≤ 150	3.11±0.65		3.14±0.50		3.13±0.52		3.34±0.54		3.15±0.50		3.18±040	
	151-250	3.08±0.52	0.22	3.18±0.48.	2.25	3.21±0.48	2.94	3.33±0.50	0.37	3.11±0.49	0.79	3.20±0.39	1.37
	251≤	3.08±0.50		3.25±0.48		3.25±0.57		3.38±0.52		3.18±0.50		3.25±0.41	
직업	판매,생산직	3.06±0.54		3.14±042		3.17±0.49		3.29±0.50		3.11±0.45		3.17±0.37	
	학생,군인, 주부	3.12±0.62		3.20±0.48		3.13±0.55		3.37±0.53		3.16±0.52		3.21±0.40	
	교육자,공무원	3.22±0.64	0.69	3.24±0.75	1.14	3.48±065	4.60**	3.47±0.55	1.77	3.27±0.70	1.18	3.35±0.59	2.32
	기술전문직	3.12±0.55		3.24±0.54		3.29±0.48		3.42±0.53		3.19±0.51		3.27±0.40	
	무직	3.05±0.51		3.08±0.57		3.03±0.44		3.30±0.56		3.08±0.41		3.11±3.38	
음주 습관	전혀안함	3.09±0.66		3.12±0.50		3.14±058		3.34±0.50		3.13±0.53		3.17±0.44	
	1달에1-3회	3.12±0.52	0.73	3.18±0.45	1.78	3.18±0.48	1.81	3.33±0.54	0.96	3.16±0.49	0.18	3.21±0.38	1.04
	주1회이상	3.05±0.58		3.23±0.54		3.25±0.53		3.40±0.51		3.14±0.47		3.23±0.41	
흡연량	전혀안함	3.13±0.56		3.18±0.48		3.18±0.52		3.34±0.52		3.16±0.51		3.21±0.40	
	하루에1갑 정도	3.01±0.56	3.04*	3.18±0.51	0.03	3.21±0.51	0.39	3.40±0.50	0.64	3.12±0.47	0.32	3.20±0.39	0.14
	하루에1갑 초과	2.97±0.73		3.20±0.52		3.12±0.57		3.32±0.64		3.12±0.47		3.17±0.45	
운동	안한다	2.98±0.53	4.84**	3.10±0.46	4.68**	3.12±0.46	3.03*	3.29±0.48	2.97*	3.07±0.47	5.55**	3.12±0.35	6.70***

www.kci.go.kr

횟수	1달에1-2회	3.11±0.52	3.16±0.47	3.15±0.49	3.31±0.48	3.13±0.48	3.18±0.38
	1주에1-3회	3.16±0.58	3.23±0.49	3.25±0.54	3.40±0.49	3.19±0.49	3.26±0.41
	거의매일	3.24±0.74	3.34±0.59	3.29±0.65	3.47±0.67	3.34±0.61	3.35±0.52

* : $p<0.05$, ** : $p<0.01$

3.7.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OHIP-14, THI, QOL을 분석한 결과 QOL와 가장 높은 상관성은 THI이었으며. OHIP-14, 식생활 행태, 구강보건실천, 구강보건지식 순이었다. 또한 THI는 OHIP-14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7).

표 7.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행태	OHIP-14	THI	QOL
구강보건지식	1					
구강보건실천	0.128**	1				
식생활행태	0.077	0.143**	1			
OHIP-14	0.001	0.074	0.202**	1		
THI	0.051	0.006	0.215**	0.502**	1	
QOL	0.111**	0.191**	0.254**	0.274**	0.340**	1

** : $p<0.01$

4. 총괄 및 고안

건강의 개념 변화에 따라 질병이 없는 상태의 협의의 개념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및 삶의 질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체 건강의 일부인 구강보건도 배제 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 연구는 영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과 전신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구강보건이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구강건강을 증진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53%가 구강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응답척도의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뉴질랜드 성인의 10%미만이 구강건강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였고[5], 미국 성인의 12.1%가 구강건강이 불량하다고 한 연구결과[6]에 비해 매우 높았다. 김남희[7]는 노인에서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의 치과진료를 시행하므로 치과처치를 받고 나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자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www.kci.go.kr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실천이 유의하게 높아 이경애[8]와 배수명, 김진경[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생활행태에서는 남자가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연령에서는 40~49세, 월수입 251만원 이상, 평소 운동을 매일하는 자가 식생활행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평소운동을 매일하는 자는 구강보건실천도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OHIP-14는 연령에서 심리적 불편과 사회적 불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30-39세인 경우에는 기능제한과 심리불편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40-49세인 경우에는 신체동통, 신체저하, 심리저하, 사회저하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Steele등[2]은 영국인과 호주인 모두 나이가 증가할수록 구강보건영향지수가 높았으며 30-49세의 호주인의 성적이 가장 나빴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아직 치아상실을 노령화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예방 및 처치가 미비하여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월수입에서도 기능제한과 심리적 능력저하에서 수입이 적을수록 점수가 낮았다. 뉴질랜드의 35~44세의 성인에 관한 연구에서 구강안녕에 관련된 사회경제학적인 변수는 교육수준만이 유의했으며 수입과 직업은 유의하지 않았다[5]고 하였다. 김영남[10]은 청소년과 노인층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나 장년층에서는 낮은 수입과 비전문직 종사자는 구강건강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혜진[11]도 월수입이 구강건강인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THI 분석 결과를 보면 학력, 음주습관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고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건강수준의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12]과 같은 결과이며, Jenkinson등[13]도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 여성은 자신이 증상수준을 높게 표현하고 남성은 자신의 질환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과장하여 건강을 인지하고 표현하므로 건강수준 비교 역시 감안하여야 할 점이라고 하였다.[14] 연령에서는 모든 영역이 20-29세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연령대는 모든 영역에서 상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의 연구대상에서 일반건강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15], 상반된 의견으로 Ware[12]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건강수준은 감소하지만 정신적 건강수준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6] 월수입에서는 전 영역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 Chen, Hunter[5]의 주장과는 상반되었으나 Wolinsky, Stump[17]는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일반건강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QOL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이 전 영역에서 점수가

www.kci.go.kr

유의하게 높았으며, 평소 운동 횟수는 전 영역에서 매일 운동하는 자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운동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Leao, Sheiham[1)]은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teel등[2)]은 구강질환을 많이 보유 할수록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Brennan, Spencer[18)]는 호주인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OHIP-14지수와 건강 지표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OHIP-14를 통해 측정된 건강 관련 지표들은 건강 서비스(utility)가 없거나 이와 관련하여 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ong등[19)] 은 중국어 버전 OHIP-14는 높은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어 중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논문과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구강보건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신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질환이 발생되기 전 미연에 예방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에는 빠른 처치로 병의 진행이 악화되는 것을 막음으로 개인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신건강의 일부인 구강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삶의 질 증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성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영남지역을 거주하는 성인 57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식생활행태, OHIP-14, THI, QOL등을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생활에서 여자가 58.0%로 높았으며, 연령은 20-29세가 35.5%로 가장 높았다. 한 달에 1~3회 음주를 한다가 49.3%이었으며, 흡연은 전혀 안하는 자가 73.1%로 높았다. 평소운동은 '안한다'가 35.5%이었으며, '매일한다'가 11.4%이었다. 주관적 구강상태는 자신의 자가 인식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가 40.4%로 가장 높았다.

2.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생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여자가 점수가 높았고 구강보건실천은 여자, 평소운동을 '매일한다'가 높았으며, 매일 운동하는 자가 식생활행태의 점수가 높았다.

3. OHIP-14는 40-49세가 가장 높았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다($p<0.05$)

www.kci.go.kr

THI는 여자와 20-29세, 수입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 건강하였으며, QOL은 전문대졸이상이라고 응답한 자와, 매일 운동하는 경우가 점수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QOL와 가장 높은 상관성은 THI이었으며. OHIP-14, 식생활 행태, 구강보건실천, 구강보건지식 순이었다.

건강생활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구강건강지수가 중요하며, 특히 연령과 월수입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Leao, A., and A. Sheiham. Relation between Clinical Dental Status and Subjective Impacts on Daily Living.. *J. Dent. Res.* 1995;74(7): 1408-13

2. Steele J. G., A. E. Sanders, G. D. Slade, et al. How do age and tooth loss affect oral health impacts and quality of life? A study comparing two national sample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04;32:107-114

3.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2007

4. 윤종률. 삶의 질 측정의 몇 가지 문제 1-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 가정의학회지 1988;19(11): 1016-1024

5. Chen, M., and P. Hunter.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A social perspective. *Soc. Sci. Med.* 1996;43:1213-1222

6. Gift, H. C., K. A. Atchison, and T. F. Drury. Perception of the natural dentition in the context of multiple variables. *J. Dent. Res.* 1988;77:1529-1538

7. 김남희.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이경애.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의 지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9. 배수명, 김진경. 성인의 구강보건지식 인지도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수준. 혜전대학 논문집 2006

10. 김영남. 한국성인의 구강건강인식에 관련된 요인.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1. 김혜진. OHIP를 이용한 산업근로자의 구강건강평가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www.kci.go.kr

12. Ware, J. E.. Measuring patient's view: The optimum outcom measure SF-36: A valid, reliable assessment of health form the patient's point of view. *BMJ* 1993;306:1429-1430

13. Jenkinson, C., A. Coulter, and L. Wright. Short form 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normative data for adults of working age. *BMJ* 1993;306: 1437-1440

14. Macintyre, S.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common cold symptom.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93;36:15-20

15. Liang, J., J.F. McCarthy, A. Jain, et al. Socioeconomic gradient in old age mortality in Wuhan, China. *J. Geronotol. B Psychol. Sci. Soc. Sci.* 2000;55(4): 222-33

16. Ferrer, M., and J. Alonso. The use of the Short Form-36 questionnaire for older adults. *Age Aging* 1998;80(6): 704-708

17. Wolinsky, F. D., and T. E. Stump. A measurement model of the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in a clinical sample of disadvantaged , older, black, and white men and women. *Med. Care* 1995;34(6): 537-48

18. Brennan, D. S., and A. J. Spencer. Mapping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o generic health state values. *BMC Health Service Research* 1949;6:96-106

19. Wong, A. H. H.., C. S. Cheung, and C. McGrath. Developing a short form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for dental aesthetics: OHIP-aesthetic.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06;35:64-72

General aspect of residents in Youngnam area and subjective evaluation about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along with health activity

Ji-Hwa Kim, Ju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Pohang college, Pohang-City 791-711, Korea

www.kci.go.kr

key words : OHIP-14, THI, QOL

This survey is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by improved oral health. Total 572 Youngnam area residence joined the survey and answered for the subjects of general aspect & health activity, self-determined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activity, food behavior, OHIP-14,THI, QOL. Survey was analyzed by SPSS (Ver. 12.0).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otal 572 residents, women were 58% and 20~29 aged were 35.5%, highest. In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d were 59.6%. In average monthly income view, Lower than 1.5 million KRW was 43.5%, 49.3% replied drinks 1~3 times a month. No smoking group was 73.1%. No exercise group was 35.5% and every day exercise group was 11.4%. In self evaluating about oral health status question 40.4%(231) replied as bad, which was highest.

2. Women have higher score about oral health knowledge. Woman and Every day exercise group have better score about oral health practice. Man, 40~49 aged, more than 2.51 million KRW avg′ income, every day exercise groups has good score about diet related question.

3. OHIP-14 has lower score as age is older, as more income. THI shows higher score from woman, 20-29, more income group and QOL has higher score from more than college educated, every day exercise groups.

4. Similar correlation indexes on QOL are OHIP-14, diet,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listed in order of effect size.

Self-determined oral health index is important to improve quality of life along with health activity, especially oral health recognition index is different depends on age and monthly income that addresses it is necessary to deliver training with carefully designed oral health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www.kci.go.kr